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음 10월 20일) 제19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6조5685억

올해보다 3150억 증액
새만금 국제공항·철도
동학혁명기념공원 등
숙원사업들 예산에 반영

전북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인 6조 5685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15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전북도는 주요사업 중,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숙원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정치권, 일선 시군의 체계적인 공조·협업과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북 대도약을 이끌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주현·정동영·김종회·조배숙·김광수(국민의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바른정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예산확보는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새만금 국제공항 등 5개사업 163억원, 전북 미래성장전략을 견인할 신규사업 248건 3695억원, 도정 3대 핵심시책(삼라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성장을 이끌 신성장 동력 재원 1조8000억원, 4차산업을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김종회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국가예산 6조5685억원 달성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선도할 첨단 신소재인 '탄소산업' 상용화 재원 848억원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공항·항만 SOC 및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 등 새만금 예산이 8947억원 확보(증가를 역대 최대 25.1%)됨에 따

라 새만금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도는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SOC 감축기조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실시로 그 어느해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나 정치권과 공조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6조568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예산 편성순기 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었다. 지역위원과 여야 정치권과의 치밀한 공조, 도 지휘부의 국회상주활동 등 실시간 현장 대응으로 국회단계 증액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책 논의

전북시장군수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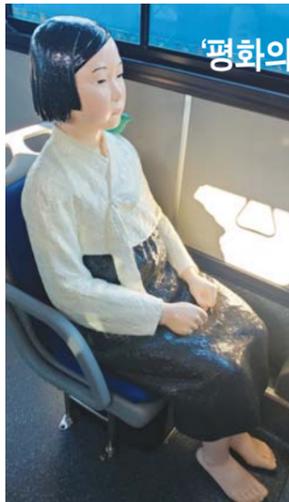
민선6기 제4차년도 전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2월 6일 16시 협의회장인 황승주 순창군수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도내 9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황승주 협의회장은 "최근 조류 독감 재발로 긴장 상태인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14개 시군의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멀리 있

는 지식보다 이웃사랑이 낫고, 이웃이 잘 살아야 덕을 볼 수 있다는 속담처럼 앞으로 시군 지자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협력사업을 늘려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사항 전달을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 지원 대책' 등 전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안건과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피해에 따른 성금전달을 논의했고, 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응급환자 안전지킴이 닥터헬기 이착륙장 가동

도, 준공식 열어... 환자 신속 이송 역할 기대

전북도내 응급환자 치료·이송을 담당하는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이 준공됐다. 전북도는 6일 원광대학교 동문주차장 일원에서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광수·조배숙 국회의원, 김도중 원광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닥터헬기 이착륙장 준공식을 열었다. 이번 준공된 닥터헬기 전용 이착륙장은 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8000만원을 들여 2016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 11월 사용승인을 마쳤다. 이착륙장에는 운항통제실을 비롯해 격납고, 이착륙장, 부품창고, 항공의료팀 대기 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헬기의 신속한 출동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첨단 의료장비를 탑재한 응급환자 치료·이송 전용 헬기로 전북도는 2016년 6월 운항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300회 가까이 출동을 귀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도 관계자는 "격납고 등 이착륙장 마련으로 닥터헬기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출동요청 시 보다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전북도민들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평화의 소녀상' 1000번 명품시내버스 타고 시민과 동행

전주시, 10일 진행키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1000번 명품시내버스를 타고 전주시민들을 만난다. 전주시가 세계인권선언 69주년인 오는 10일부터 '12.28 위안부 합'의 2년 도래일인 28일까지 '평화의 소녀상, 전주 시민과 1000번 버스 동행'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은 오는 10일 오후 2시 풍남문 기억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평화의 소녀상에 온기를'이란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동행하게 된다. 이 행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편지 낭독, 모자와 목도리 걸어주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

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오후 2시 30분 한옥마을 정류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전주 1000번 명품버스에 탑승해 전주동물원~전주역~금암광장~한옥마을~치명자산까지 12.5km 구간의 노선을 오가며 시민과 관광객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평화의 소녀상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증언을 밝힌 후 수요 집회일 1000회인 2011년 12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됐다. 전주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2015년 8월 13일 풍남문 기억의 광장에 설치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12번째

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화의 소녀상과 전주시민과의 19일간의 버스 동행을 통해 일본인의 부성침탈에 항거해 한옥마을을 조성했던 전주정신을 기리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 소녀상은 지난 7월 서울 동이문수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서울,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시민들과 동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국립세종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